

[제호] 8월신문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이지사의 일침

2021년 8월 17일, 일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고유의 영토에 상륙했다'며 이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 외무성의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독도 주변 해역은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다양한 어류들이 사는 엄청난 어장이다. 또, 독도 주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면 일본의 영해가 늘어난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나라의 소유라는 것은 독도의 명칭이 우산도일때부터 명확히 명시되어있다. 일본은 세종 때 만들기 시작해 중종 때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포함된 팔도총도에 독도가 잘못표기되어 있다며 지적했는데,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의 동국대지도, 18세기 후반의 아국총도, 19세기 중반의 해좌전도에 명확히 표시된 독도를 보여주자 일본은 침묵을 지켰다.

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독도로부터 약 2km 떨어다.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에 대해 기록한 주장한 내용과는 어긋났다. "이도상거불원" 즉, 얕다. "풍일청명즉가명견" 즉, 날씨가 청명할때던 것이다. 게다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 동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에 대한 실험을 통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 맞으며, 독도가 우



(독도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동국대지도)

고심하던 일본은 우진 죽도라고 주장했 내용을 보면 일본이 두 섬의 거리가 멀지만 보인다고 써져있 월까지 약 1년 6개월 행한다. 이 연구를 통

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 맞으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진실이 더 확실해졌다. 이외에도 "울릉도 개척령"과 "칙령 제4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스 캐핀 문서 677호", 안용복과 "돛토리번 답변서", "일본여지노정전도 '개정판'과 '초판'을 살펴보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독도가 한국땅인 것인 확실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소유의 땅이라고 할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교육하고있다. 일본 방위성은 16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30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はじめての防衛白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13쪽에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의 경계감시 상황을 일본 지도에 전투기, 군함 등의 그림을 동원해 보여주는 부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자국 영토로 그려 놓았다. 또한 한 예능에서, 일본을 방문해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중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모든 일본인들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몇몇은 "그것은 당연한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도가 어디있는지 아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시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된 '평화의소녀상'



광주 평화의 소녀상 (국제자매도시공원)

좌측에 있는 사진은 하남 국제자매도시공원에 자리잡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민간단체 정대협이 중심이 돼 서울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시드니, 독일의 드레스덴 등 외국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

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8월 14일로 지정했다. 지난 13일~14일에는 전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시회, 기념식, 기념행사가 있었다.

을 VR아트로써 만나볼 수 있다. VR아트란 눈에 속에 존재하는 작품을 말한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직접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상을 주제로 VR작품을 만든 이재혁 아티스트는 위치고 있는데, 현실에 세워지는 조형물 형태의 가지 이유로 전시가 쉽지 않습니다. VR아트 소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와 기억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게다가, 평화의 소녀상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어도 평화의 소녀상을 국내최초 평화의 소녀 "해외에도 소녀상이 세 소녀상은 비용 및 여러 상은 전 세계 누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1938년 일제강점기, 돈을 준다는 유혹과 식량공급을 중단한다는 협박에 일본에 강제동원된 약 800여명의 조선인. 제대로 먹지도, 돈을 받지 못, 쉬지도 못하고 해저 1,000m에 이르는 평균 45도 이상의 고온으로 펄펄끓었던 갯도에서 하루 12시간 석탄을 캐었고, 이런 참혹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은 공식 집계 134명, 누락되거나 은폐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때 당시 4명의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다른 피해자 85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3년전 나왔던 대법원의 판결의 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국제조약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반할 경우 국제사회 압박을 뿌리치기 힘들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일본의 군함도, 일본의 군함도 왜곡에 유네스코는 강한 유감을 밝히며, 강제 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릴 것을 촉구했었다. 7월 16일 부터 회의가 진행된 유네스코의 결정문 채택을 앞두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었다.

"집 밖에 나가면 죽을 까봐 못나가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극단주의 무장 단체 탈레반 단원들의 사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탈레반은 1992년부터 결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이다. 탈레반 초기에는 비교적 상식적인 이슬람 율법 적용과 엄정한 규율, 파슈툰족 내에서 팽배한 하자라족 혐오 감정을 등에 업고 오랜 전쟁과 기존정부의 무능에 지친 아

프가니스탄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탈레반들이 계속 거점을 점거하여 피난민들이 공항으로 몰려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미국-아프칸 전쟁이 발생했고 결국 미국도 패배하고 그 지역을 나온 뒤였기에, 도와줄 미군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 전체 34개주 주도 가운데 25개를 차지하는 등 카불 외 다른 대도시 이미 대부분 점령한 상태이며 수도인 카불을 총공격 하기 직전이다. 향후 가능성으로는 첫째, 강대국들이 개입을 전혀 안한다면 탈레반이 현재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배체제를 공고화 할 수 있다. 둘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과 연대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통로확보를 위해 중국이 개입할 수 있겠으나 개입을 해도 결론은 중국은 미국처럼 패퇴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 탈레반과 중재를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은 적어보이는 상황에서, 8월 23일, 아프간 무장세력 '마수드'는 "탈레반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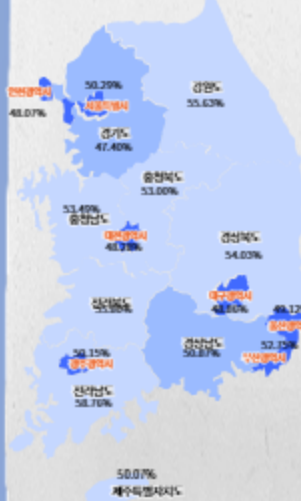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확진자수, 전면 등교는 진행되고 있을까?



29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15일, 하지만 확진자수는 꾸준히 올라 현재 8월 23일 기준 237,78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4단계 지방권 3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중고 전면등교는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학기 개학은 3단계에서는 초등 1,2학년 고등 3학년 전면등교를 추진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초

등 3/4 등교, 중등 2/3 등교, 고등 1/2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 까지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전면 등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는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 현황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1차접종 백신 접종 현황은 8월 23일 기준 50.5%이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맞은 사람은 22.5%이다. 옆의 그림그래프는 지역별 백신 1차접종률을 나타낸 것이다.